

연중 제31주일

기도서 469 면 (C해)

제1독서: 지혜 11, 22-12, 2

제2독서: 데살 후 1, 11-2, 2

복음: 루 가 19, 1-10

# 순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인간회복

이재후 신부

「예수께서 자캐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루가 19, 9-10).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을 요구하고, 가정이 어지러우면 현모를 요청함 같이 혼란한 이 세대에 주의 충성된 종과 진실한 신자를 갈구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날 요청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앞의 성서구절은 예수의 참된 그리스도상을 나타내 주신 말씀이다. 즉 인자의 오심은 많은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시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참된 인간성과 고귀한 영혼을 잃었다. 오늘의 우리 시대를 과학과 생산의 시대라고 말한다.

물질 세상에서 물질을 향락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육신 생활이 즐겁고 행복되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생산이 목적이 되고, 인간은 수단과 방편이 되어 버렸다. 그러기에 생산을 위한 조직과 제도과 기술은 우리의 인격과 인간성을 지배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인간은 생산의 노예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인간의 고귀한 영혼은 볼 수 없게 되었다. 현대는 영혼 부재 상태를 초래하였다. 인간생활이 기계화되면서 인간은 살아 있는 종장처럼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정과 사랑을 잃었다. 과연 현대의 기계화는 인간에게서 고귀한 정신과 정을 빼앗아 갔다.

현대인은 이 잃어버린 정을 기계에서 얻은 여유 있는 여가선용과 부에서 찾아내려고 애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TV나 야구, 축구 구경하는 것으로 소일하며 어떤 정신적 만족을 배꾸어 보려고 하지만 허탈감 뿐이다. 진정 오늘은 정이 말라버렸고 사랑이 없어서 사람의 생명이 고갈된 상태이다. 정다운 사귄으로만 살아갈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이, 사귄을 나눌 이웃을 잃었다. 그러기에 인자 예수는 이 잃어진 사랑과 정을 찾아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느님의 풍성한 사랑을 쏟아주셨다. 오늘을 사는 예수의 참된 신자는 이러한 정을 되살리고 사랑을 되찾아 인간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데서 자기 참된 신자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기와 타산에만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느님의 사랑의 수혈을 받게 하여 산 송장에 사랑의 혼을 불어 넣어야 하겠다.

(월명동 주임신부)



## 다시 태어나야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따라서 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는 이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늘 건전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그 모습을 닮고자 하는 것이다.

날로 새로워지고자 하는 몸짓을 우리는 영원히 계속되는 세례(洗禮)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매일 매일, 아니 순간 순간에 물과 성신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길이 크리스찬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다짐하는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 일찌기 인류의 큰 스승들도 그것을 인간이 걸어야 할 길로 제시했다.

새로워지는 방법은 새로운 흐름을 읽히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새로운 것을 읽히려 들지도 않는다. 날로 세상과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는 마당에 그 모습을 배우려 들지 않으니 문제다. 그런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새로운 것이 가득 들어 있어도 심장과 손발이 따라 주지 못해서 빈축을 받고 있다. 이것도 큰 문제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앞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자세다. 너 나 할 것 없이 배우고 새로운 행동으로 말해야 한다.

병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늘 새로운 흐름을 배우기 위해 책을 가까이 하시며 의연한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던 한 원로 사제의 선종을 통해서 또 무언가를 배우고 다짐해 보자.

## 순정이 산책



어진 탁덕

고 김 후상 신부님을 추모하며

박 성 운 신부



존경하옵 신부님!

이 웬일이십니까? 한 달 전에 신부님을 뵈었을 때 그렇게 반가이 맞으시며 기쁜 답소를 하셨는데 한 달이 다 못되어 이번에 와서 "신부님, 저 왔습니다." 아무리 의처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신부님은 한 달 이내에 변신을 하셨습니까? 너무도 야

속합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그때 작별인사를 하면서 "부디 건강하시고 환절기가 다가오니 옥체 보존하십시오" 말씀드리니 "아니,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몰라 이 못나고 죄 많은 신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신 그 말씀이 엇그제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무정하게 누워계십니까? 알아 보시지도 않고, 왔냐는 그 고마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 우리 모든 후배 신부들, 우리 모든 교형 자매들이 매한가지의 감정일 겁니다. 물론 당신이 걸어오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자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꾀하신 분이요, 성직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랄데 없는 착한 목자의 역할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부족함을 당신의 죄 많음을 늘 애통해 하셨습니다. 당신이 걸어오신 그 어렵고 찬란한 길,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적 생활 그것은 바로 모든 이의 귀감이 되셨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구라파에 비안베 성인이 계셨다면 우리 한국에 특히 우리 교구에서 아직 성인품은 받지 않으셨지만 신부님을 한국의 비안베 성인이라 칭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어찌 탁덕 노릇을 하셨습니다. 무엇하나 구김살 없는 그러한 생애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5시 30분에 꼭 기상하시어 30분간 묵상하시고 그렇게 경건하게 미사를 집전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일입니다만 언제나 어려운 신실 본당을 당신이 자원하여 맡아 가셔서 가진 교생을 다하면서 성당을 지으시고 그 본당을 부요하게 하신 것이 당신이십니다. 성당을 지으실 때, 특별히 입실에서, 제가 가끔 방문하면 성당을 잘 <3년에 계속>

많지 않은 사람들

비비안나 수녀님께 창으로 보이는 하늘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비라도 시원하게 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체 유치원에서 수녀님을 뵈은지 10일째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그간 몸 건강하시며 안녕하신지요. 저희들은 수녀님 열려 덕분에 아무런 사고없이 이곳 생활에 충실하답니다. 얼마 전에 교무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낸 수녀님의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머리에 떨어지는 빗방울에 가슴 아파 하시며 밤을 샜으셨다는 수녀님.

저희들의 그늘진 웃음을 생각하며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수녀님에게서 저희들은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거센 강풍과도 같은 험한 세상에 저희들은 수녀님에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수녀님은 저희들에게 동정아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바다에 폭풍이 불면 조각배가 중심을 잃고 방황하듯 저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저희들은 고뇌와 번민에 빠져 중심을 잃고 헤매입니다.

이럴 때 마음을 위로해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아픔을 대신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에 대한 수녀님의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가 바라는, 국가가 바라는 그러한 청소년이 될 것을 수녀님에게 약속드립니다.

먼훗날 저희들은 '참 좋은 수녀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고 수녀님의 옛된 웃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만 만일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비비안나 수녀님에게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진심입니다. 수녀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다른 만남을 위하여 이만 줄일까 합니다 수녀님 몸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을 다시 한번

10월 14일  
전주 소년원에서 경진 드림

방송안내 : 성가를 들으며 -매일 저녁 10시~20분(일요일 제외) 이리 기독교 방송(1314KHz)

금 은 · 보석 · 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  
**금 보 장**  
장(박지저)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경기 특설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26228  
이 마리아(명자)  
범 락(덕배)

□마춤 · 대여□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 · 연주복 ·  
비디오촬영 · 페팩의상 ·  
신부부케 · 야외촬영  
판통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6951  
정 인 기(논지노)

○혼수(회갑) 옷감 | 도  
○특수 파티분 \* 매  
○고급 침구류 | 상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  
**서 울 주 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르니카)



### □ 200주년 기념 교구 사목회의 끝나다

지난 25일, 전례, 지역사목, 특수사목에 대한 의안을 다룬 사목회의를 끝으로 200주년 기념 교구 사목회의가 모두 끝나게 되었다. 교구 사목회의 위원회 주관으로 4차에 걸쳐 열렸던 교구 사목회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신부님들, 수녀님들, 평신도들께 감사 를 드린다.

### □ 정착촌 교육 안내

사목국에서는 지난 4월말 정착촌에서 일하시는 수녀님들과 모임을 갖고 다음과 같이 각 마을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별히 이번 연수회는 평협의 후원으로 실시되 며 이와 같은 교육은 매년 1회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장소는 각 정착촌에서 하기로 했다.

11월 5일~6일-상지원 공소  
19일~20일-신암 공소

12월~13일-익산 공소  
26일~27일-동해원 공소

<2면에서 계속> 짓기 위해 보속해야 하니 당신은 죽을 드사면서도 저에겐 밥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니, 신부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 “손님은 하느님과 같이 대접해야 해” 하셨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럴 수 없는 찬란한 모범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이가 본받아야 할 덕이었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여가 선용으로 책을 읽으시고, 눈이 아프시면 나오셔서 풀을 매시고 또 무엇인가 만드시고 하시면서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신 당신이십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겠고 근 90평생을 이렇게 하신 전형적 사제이십니다. 그 예모는 얼마나 철두철미하신지 손자같은, 자식같은 신부나 형제가 와도 병석에 계시면서 당신 맘대로 기도도 못하시지만 기여코 일어나서 인사를 받으시고 또 떠날 때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문앞까지 배웅하시다 몇 번이나 넘어지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 예모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이가 정말 두고두고 목상하고 본받아야 할 전형적 예의 범절을 지키시는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청빈 허원을 하시진 않았지만 일생을 통해서 가난 그 자체로 사셨습니다. 쓸만한 것은 다 불쌍한 사람에게 주시고 당신은 누더기로 일생을 지내셨습니다. 청빈 허원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청빈의 덕을 닦으셨습니다. 한 마디로 당신은 일생을 구걸할 없는 한 톨의 그림으로 아로새겨 놓으시고 가셨습니다. 당신을 마지막으로 떠나 보내는 우리로서 이제 늦게나마 정신을 가다듬고 차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하나의 발자취를 그대로 본받고자 당신 영전 앞에 굳게 마음 다짐합니다. 신부님 이제는 아픔의 장막을 벗어나 출도, 덥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행복처에서 편히 쉬시고 이 못난 당신의 후배들 우리 형제들을 위해 직접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고 또 빌어주십시오.

존경하을 신부님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 고 김 후상(바오로) 신부님 약력

1914년10월3일-대구 성 유스더노 신학교 입학, 26년5월29일-상교 졸업 사제서품(대구성당), 26년5월30일-거제도 왕포리 교회 주임, 42년1월20일-대구 명치정 대성당 주임, 42년5월15일-전동교회 주임, 46년6월15일-군산교회 주임, 47년4월16일-교구 경리 피임, 48년8월20일-화산교회 주임, 54년11월6일-대리주교 및 평의원 피임, 55년10월17일-상기 평의 사임과 동시 중앙성당 근무, 56년5월5일-이리교회 주임, 57년8월26일-임실교회 주임, 61년-남원교회 주임, 61년7월1일-교구 상서국장 피임, 62년7월 9일-황동교회 주임, 67년6월24일-휴양(은퇴), 83년 10월 20일-선종

### □ 감사 합니다

고 김 후상(바오로)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장례예절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의위원회 위원장 황 인 규 신부

### 요심이(534) 김병오



특수 자연식 컴퓨터로  
눈을 편 하 게 보호하는

**보안당** **센타**

얇은·가벼운·코팅·특수렌즈  
구역전 오거비  
전화 ③ 3 0 3 2  
윤(베드로) 중순

※ 각종 가방 제조원  
☆선물용·행사용·개업용☆  
주산가방·유치원가방  
\*고주파 시설 완비\*  
노트포지·메뉴표·통장케스

**전주PR사 ⑥ 0901**  
전주 서서학동(장승백이)  
이진국(다마스)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씨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③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미용과·양재과·한복과  
수시모집, 최고의 시설,  
기숙사 완비,  
일류강사진 책임지도

전주 **노라노 양재,**  
**미용, 학원**

전주시 교사동(적십자사 앞)  
☎ ③ 4835·③ 9826  
원장: 김베드로(정두)

**코오롱 맨☆스타**

전주 특 약 점  
(호성맨하탄)

▲ 국민카드·신용카드 가맹점  
전주시 중앙동 3가 26(중앙동 풍년제과 앞)  
전화 ⑥ 8 4 1 5      김 돈 중(아드리아노)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축! 견진: 장계 본당 (30일)

1. 교구 사목협의회 창립총회: 11월 4일 오전 10시30분
2. 월요성서: 11월-이스라엘의 지혜문학
3. 제5차 소년, 구리아 회의: 11월 6일 오후 2시, 장소-대야 천주교회, 대상-각 브레시디움 간부
4. 7지구 교리교사 월례회의: 11월 5일 오후 4시30분. 장소-합일, 회비 지참 바람
5. 사제평의회: 11월 11일 오전 10시30분
6. 전주 시내 합동 위령미사: 11월 2일 오전 11시, 장소-솔이개재 교회모지

(중앙)

전화 ⑥1711~3

수입	신부	문	정	훈
보좌	신부	안	철	문
사도	회장	인	인	협

1. 사도회 상임위원회: 11월 6일(일) 공식미사 후
  2. 성전신축 바자회: 기간-10월 30일~11월 2일  
품목-고급 숙녀복, 넥트, 남성복, 아동복, 스포츠 레저용품, 장갑류, 전어류, 긴장용 벨치즈, 수입품 주방기구, 구두, 우산, 토종꿀, 나전철기상, 자기류 남성PAT 등
  3. 주일학교 자모회: 11월 1일 오후 3시  
신약성서 지참, 히브리어 읽어 올 것
  4. 중 교리반 우수작: 글-김태은 외8, 그림-최현정 외5
  5. 목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519, 496단 불헌
  6. 차주 독서담당: 병인의 나눔 브레시디움
  7. 도서전시: 11월 6일(수녀연합회 주최)
- 지난주 봉헌금: 740, 705원 교무금: 589, 000원  
새성당 주일금: 93, 800원

(노송동)

신부 ④0969  
수.사 ②7032

주입	신부	김	동	태
보좌	신부	나	훈	성
사도	회장	이	홍	재

1. 11월 2일 위령의 날: 위령을 위해 미사 봉헌함시다
  2. 로사리오의 밤: 31일 저녁 7시, 많은 참여 바람
  3. 성탄절 영세 준비자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4. 중등부 교사단: 전병구·최영면·김숙·김미숙·이은숙
  5. 아파트 소식
    - ① 주일학교 성지순례: 5일 오후 2시(천호공소)
    - ② 성모회 성지순례: 10일 오전 8시반(천호, 나바위)
    - ③ 지성인 교리반 변경: (수)→매주 (금) 오후 8시
    - ④ 성서연구: 인후아파트-매주 (수) 오전 10시  
우아아파트-매주 (수)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363, 495원 교무금: 360, 000원

(덕진)

신부(3)2182 주입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 모임: 진복회 월례회의, 공식미사 후
  2. 까리마스 자모회 월례회의: 11월 1일, 나바위
  3. 성심부녀회 월례회: 11월 3일, 사선대
  4. 사도회 상임위원회: 11월 5일 저녁 7시30분
  5. 사도회 각 분과위원회: 11월 6일 공식미사 후
  6. 각분과 및 단체 84년 사업계획 및 예산(10월말까지)
  7. 월례 반형제 모임에 적극 참여함시다  
※ 본당 회보 참조-매달 첫주 발행
  8. 결혼을 축하합니다  
10월 30일 오후 12시30분  
신랑-임베드루(선덕), 신부-김매순  
11월 6일 오후 12시30분  
신랑-김성곤, 신부-김율리(안나(광자))
- 지난주 봉헌금: 412, 885원 교무금: 616, 500원

(복자)

전화 ③5238원 주입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훈

- ※ 11월은 위령성월: 선영들을 위해 미사 봉헌해 주시고 매 미사후 연도 바칩시다
1. 사도회: 저녁미사 후
  2. 첫철례 6: 11월 4일 저녁 7시30분  
첫철례 7: 11월 5일 저녁 7시30분
  3. 견진자 교리: 30일·11월 6일-공식미사 후  
견진자전대-1천원, 견진비·미사예물·주교님 접대비-1천원, 대부·대모 안세우신 분 금주내로 서류완결
  4. 수녀원 신축금: 김영숙-3만원, 이성복·최규옥-2만원, 이명순-1만원, 김봉자-5천원, 누계-6, 298, 500원
  5. 복자부녀회: 11월 7일, 어머니미사 후
  6. 영화상영: 저녁미사 후, 제목-이 땅에 빛을 의 1편

7. 봉헌금 미수 완납 바랍니다

8.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천 건 ②은회영
  - 차주전례: 해설-이명래, 독서-①이상기 ②정동민
- 지난주 봉헌금: 566, 450원 전교주일금: 63, 281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입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사도회 월례회: 11월 2일 저녁 7시30분
  2. 자모회 모임: 11월 1일 오전 10시30분
  3. 유아세례: 매월 첫주일 10시 미사전(9시30분)
  4. 가정방문: 11월 1일-3반, 2일-4반, 4일-5반
  5. 차주전례: 독서-①이정민 ②김나섭
- 지난주 봉헌금: 264, 395원 교무금: 196, 000원

(숲정이)

전화 ⑦7366 주입 신부 김종길  
수.유 ⑨9567 사도 회장 김수급

1. 애령회: 오늘 공식미사 후(짜수월 마지막주일)
  2. 누갈다 부녀회: 금주 토요일
  3. 신영세자 첫교백: 11월 1일 오전 10시·오후 6시30분
  4. 구역모임: 2일-서신2구 오후 7시30분, 3일-서신4구 오후 2시·동양아파트 오후 7시30분, 4일-서신3구 오후 2시
  5. 예비자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6. 금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①선종현 ②이귀례  
기도-강원모·홍성조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①김종환 ②송용호  
기도-이강노·박병열
- 지난주 봉헌금: 129, 346원 교무금: 412, 500원  
전교주일 헌금: 62, 055원

(전동)

전화 신부 ⑥6208 주입 신부 김병엽  
사무 ③3222 사도 신부 박찬길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글라라 협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성가정회: 11월 1일 12시
  3.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유아세례: 다음주 학생미사 후
  5. 예비자 교리안대: 수·목-저녁미사 후(보좌신부)  
금-오전 10시30분(김세시리아 수녀)  
토-오후 3시30분(임로사 수녀)  
일-오전 11시(김세시리아 수녀)
  6. 가정방문 일정: 전동·다가동-11월 1일~4일, 동교동·서교동-8일~11일, 동완산동·서완산동-15일~18일, 풍남동·남도동-22일~25일, 경원동·중앙동·기타-29일~12월 2일
  7.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신일균 ②이영배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이훈 ②최원일
- 지난주 봉헌금: 591, 660원 교무금: 537, 000원

(파티마)

신부 ④0915 주입신부 김영일  
수녀 ④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주일학교 어린이 소풍: 오늘
  2. 아치에스 레지오 행사: 오늘 오후 2시  
레지오단원 전원(월조단원까지) 참석 바람
  3. 아치에스 행사 후에 미사가 있습니다
  4. 유아세례: 다음 마지막주일에 있음
  5. 각분과는 84년도 예산을 오늘까지 제출 바람  
제출치 않은 분과는 84년도 지출도 없습니다
  6.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11월 둘째주일에 사도회 화대회와 겸해서 열겠습니다
  7. 기사회: 11월 5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224, 590원 교무금: 322, 000원  
어린이 전교회금: 11, 810원